



경기도가 9일 평화누리길 11코스 주상절리 구간을 걸으며 환경정화 활동을 벌이는 민관군 합동 클린티어(Cleanteer) 활동을 실시했다. 사진은 환경정화 활동을 벌이고 있는 모습. /경기도 제공

## 道, 평화누리길 걸으며 '클린티어' 활동

연천을 잇는 도 최북단 트래킹 코스다. /안경환기자 jing@

### 민·관·군 환경정화 실시

경기도는 9일 평화누리길 11코스 주상절리 구간에서 민관군 합동 클린티어(Cleanteer) 활동을 실시했다.

클린티어는 도의 최북단 트래킹 코스인 평화누리길을 걸으며 환경정화 봉사활동을 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날 행사에는 도와 연천군 직원, 연천군 미산면 주민, 육군 제 3357부대 장병, 경기관광공사 직원

등 300여명이 참여했다.

참여자들은 특별 제작된 쓰레기 봉투와 집기를 들고 3~4시간동안 평화누리길 지킴이의 코스설명과 생태관광 해설을 들으며 환경정화 활동을 펼쳤다.

최봉순 도균형발전기획실장은 “클린티어 프로그램은 참가자들이 건강과 보람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 의미 있는 시간”이라고 말했다.

한편, 평화누리길은 DMZ 접경 지역 4개 시·군(김포, 고양, 파주,

## 경기도, 연천 주상절리 일대 '클린티어' 활동

### 【앵커멘트】

경기도는 오늘 연천군 주상절리 일대에서 봄맞이 클린티어 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한편 인천시는 음식점 위생환경 개선을위해 주방을 들여다볼 수 있도록 개방형으로 바꾸는 음식점에 대해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재상 기자입니다.

### 【리포트】

경기도북부청은 오늘 경기도 연천군 일대에서 '클린티어' 활동을 실시합니다.

이번 클린티어 장소는 연천군 동이리의 평화누리길 주상절리 구간 3.5km 구간으로 민관군 자원봉사자 300여 명이 평화누리길을 걸으면서, 환경 정화 활동에 참여하게 됩니다.

클린티어 활동은 깨끗함과 봉사활동이라는 뜻의 두 영어 단어를 합친 신조어로, 환경을 정화하는 봉사활동 프로그램입니다.

경기도교육청은 오늘부터 6월 말까지 석 달간 일선 공립과 사립 학교를 대상으로 '5대 부패 취약분야 특정감사'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5대 부패 취약분야는 방과후 학교와 사학, 기간제교사, 학교 운동부, 용역 계약 등입니다.

감사에는 감사관실 직원 34명이 투입돼 25개 지역교육청과 100여 개 학교를 대상으로 시행됩니다.

인천시는 주방을 들여다볼 수 있도록, 개방형으로 바꾸는 음식점에 시설 개선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인천시는 오는 13일까지 신청을 받아 현장 점검 후 4개 업소를 최종 선정해 음식점별로 최대 5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원 범위는 손님이 주방의 내부를 볼 수 있는 개·보수 비용과 CCTV설치 비용, 주방 위생 관리에 필요한 설비 설치 비용 등이 포함됩니다.

OBS뉴스 이재상입니다.

<영상편집 이승진>